

#1 프롤로그

내레이션: 의뢰인 정보/성명: 오현석/성별: 남성/연령: 61세/혈액형: AB형/병명: 궤양 4기/
항암치료 기간: 6개월

복잡한 케이블들이 연결된 의식전송 장비를 착용한 오현석이 누워있다.
다운로드 게이지가 차오르고 ‘Success!!’ 전송완료 메시지와 함께 로봇이 된 현석의 얼굴 클
로즈업.

내레이션: JB-11호 의뢰인 의식 전송 완료!!

#2 시골 집

시골 집 외관을 보여주며

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”

검은 실루엣 넘어 가족들이 엮드려 절을 하고 있다.
로봇이 된 현석의 얼굴이 드러나며.

현석(로봇): 그래 고맙구나. 너희들도 건강하고 대박 나거라.

아들: 아버지 어떻게 적응이 좀 되세요? 어디 불편하시거나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은 없
으세요?

현석(로봇): (팔을 뻗고 돌리며)그럼, 이게 너희들이 얼마를 주고 해준 몸인데 잘 작동해야지.
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건강 챙기거라.

며느리: 아버님 이제 몸도 새로 생기셨는데, 새로운 인생 사셔야죠. 여기서 외롭게 지내지 말
고, 이참에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요. 제가 잘 모실게요.

아들: 그렇게 하세요, 아버지! 애들도 할아버지가 멋있어 졌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지
몰라요.

손녀: 할아버지! 우리랑 같이 살아요!

손자: 그래요! 할아버지 짱 멋있어요!!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!!

현석(로봇): 아니다. 나는 여기서 절대로 편해! 내가 직접 이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, 공기의 성
분과 습도 그리고 토양의 오염도, 방사능 수치, 지진 위험도를 분석해보고 풍수지리에 수맥까

지 조사해봤는데 내 몸에는 여기가 딱 이라는 결론을 얻었지. 비록 로봇 몸이지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. 안 그러니?

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의 가족들.

#3 시골 집 외관

현석(로봇): 세배도 받았고 다들 바쁠 텐데 그만 가 보거라.

아들: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. 저희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.

현석(로봇): 알았다. 알았어! 피곤하다. 어서들 가 보래두.

#4 시골 집 방 안

손자: 할아버지 안녕!

가족들의 홀로그램이 사라진다.

현석(로봇): 휴! 이제 좀 조용해졌네.

#5 시골 집, 저녁

엄청난 속도로 홀로그램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는 로봇.

현석(로봇): 같이 살자고?... 거기 가서 나보고 애나 보라고? 새로운 몸을 해 준 건 정말 고맙지만, 이왕 효도하는 거 너희들 말대로 제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다오.

공중에 떠 있는 지도에 어느 한 지점이 깜빡거리고 있다.

로봇: 유정아...

#6 밤하늘

로켓 추진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로봇.

현석(로봇): 30년도 넘었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?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? 유정! 나... 너 보고 싶었냐?? (부끄러운 듯 몸을 꼬며) 으으으... 로봇 몸인데도 오글거리는 구만!

#7 상갓집, 유정 집 앞

상을 치르고 있는 집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현석(로봇)

현석(로봇): 설마.... 안 돼....

대문이 열리고 현석(로봇)의 앞에 누군가 서 있다.

유정: 거기 누구세요?

현석(로봇)의 앞에 검은 상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서 있다.
유정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어루만지는 로봇.

현석(로봇): 유... 유정.... 살아 있었어! 죽은 게 아니야...!

유정도 현석(로봇)에게서 느껴지는 온기에 거부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 같다가 현석(로봇)을 강하게 밀쳐낸다.

유정: 요즘 정신만 로봇 몸에 전송받은 놈들이 나쁜 짓하고 돌아다닌다더니!! 사람이 도리가 있지 지금 상중인 거 안 보여!! 오늘 너 잘못 걸린 줄 알아!

무안해 하는 현석(로봇)

현석(로봇): 유정아!! 나야 나!

유정: 어떻게 내 이름을....??

현석(로봇): 나 현석이라고!!

유정: 현석.....??

현석(로봇): 그래! 늦었지만 너와 한 약속을 지키러 왔어.

유정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로봇을 바라보며 서 있다.

(과거 회상)

군복을 입고 있는 청년 현석과 소녀 시절의 유정이 마주 보고 서 있다.

현석: 이 반지 내가 간직할게. 이번 전쟁이 끝나면 청혼할게.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. 약속!

유정: 알았어. 반지 꼭 지켜줘!

(현재)

현석(로봇): 3차 세계대전... 그때 그렇게 헤어지고 살 방법을 찾아다니다보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 있었어. 하지만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어. 미안해... 내가 너무 늦게 와 버렸네.

유정: 현석씨.....

현석(로봇): 나 얼마 전에 몸쓸 병에 걸려 거의 죽었었어. 그런데 사경을 헤매던 그 순간에... 네 얼굴만 생각나더군.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지. 비록 온기는 사라진 몸이지만 마음은 그대로야. 나도 놀라워... 한 번 죽다 살아나니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게.

(무릎을 꿇고 반지케이스를 열며)

유정! 나와 결혼해 주겠소?

유정: 현석씨..... 미안해요...

현석(로봇): 역시 안 되겠지...? 그것도 이런 몸으로 와서...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. (고개 숙이며)후회하지는 않아. 살아있는 당신 얼굴을 봤으니 된 거지... 그래 그걸로 된 거야.

유정: 나 곧 죽어요...

현석(로봇):(화들짝 놀라며) 뭐라고??

유정이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을 보여준다.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모습

현석(로봇): 유정아... 어쩌다가...

유정: 신종 바이러스에 걸렸어요. 형편이 이렇다보니 보험혜택도 못 받고 애들 아빠도 같은 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. 개망나니 같은 놈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으니 상은 치르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...

현석(로봇): (유정의 손목을 잡으며)방법이 있어!

유정: ??

#8 예식장

내레이션: 1년 후

현석(로봇): 유정아, 고마워! 나와 결혼해 줘서

사진사:자! 가족분들 나오세요!~

사진사가 셔터를 누른다.

사진사: 찍습니다! 하나 둘 셋!

‘찰칵’

가족 사진 속에 현석(로봇)과 “로봇이 된 유정”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다.